

全通 마땅히 일어날 때 일어나지 못하고 젊음만 믿어 힘쓰지 않으면 스스로 약해 구렁에 빠지고 항상 게을러 지혜를 얻지 못하리.
(法句經·도행품 306절)

東大新聞

발행처	발행일	발행인	발행처	발행인
경북 경주시 석강동 707	1991년 5월 8일	김영환	경북 경주시 석강동 707	김영환
전화	팩스	인쇄	인쇄	인쇄
02-279-1270	02-279-1270	김영환	김영환	김영환

제 1074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단-10 1955.10.13 제 3 종우편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1년(단기4324년)5월8일 (수요일) 【1】

눈부신 동국의 빛... 인류의 등불되자



개교 85주년

축화 金昶均 (도화·본교 미술과 강사)

다가올 21세기는 수준높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부형, 동문 여러분께
귀의 삼보하옵고, 건학이후 1세기에 가까운 85년의 오랜 전통을 통해 빛나는 학문적 소산과 영재교육에 남다른 업적을 이루어 낸 동국대학교는 이제 그 자랑스러운 전통위에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다가올 21세기는 국내외적으로 새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거대한 변혁을 예고하고 있어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맞는 수준높은 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국대학교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우고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으로서 새롭게 발전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학의 목표를 중단없이 진행시키고 민학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1차적인 과제는 교육시설투자(교육용 설비, 시설 확충, 도서관 장서구입)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채권'을 발행하게 되었사오니 학부형 및 여러 동문께서는 이를 깊이 헤아리시어 좋은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채권발행안내

1. 발행금액: 14억8천만원 (₩1,480,000,000)
 2. 금 리: 무이자
 3. 발행단위: 5만원권,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4. 매입신청기간: '91년 5월1일부터(사업종료 '91년 12월31일)
 5. 매입방법:
 - 가. 등록금 납입시 직접 매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무통장 온라인 방법으로 매입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구좌명"으로 해당금액을 입금시킨 후 서울캠퍼스 기획과, 또는 경주캠퍼스 기획홍보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매 입 처: 가. 서울·경주캠퍼스 경리과
나. 조흥은행 전국 각지점
 7. 납부구좌명: 동국학원 이사장: 313-03-001769(조흥은행)
 8. 상환기간:
 - 가. 학부학생의 학부형: 학생의 졸업, 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이내
 - 나. 각 대학원 학생 및 동문: 매입일로부터 2년
 * 상환금 지급일은 약정 상환기간 만료후 4월, 10월로 함
- 안 내 처: 서울캠퍼스 기획조정실 기획과 (02)267-8131~9
경주캠퍼스 기획홍보과 (0561)2-0131~6

1991년 5월 8일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 사 장 오 록 원
 동 국 대 학 교 총 장 민 병 천
 동 국 대 학 교 총 동 창 회 장 정 재 철

사설

노대통령의 결단은 우리가 내주어야 한다

강경대군 폭력살인 이후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군 등이 잇달아 공안동태에 항거하여 산화해 온 나라에 노대우정권 퇴진투쟁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서울에서 제2주에 이르는 모든 곳, 심지어 '반공의 성지' 대구에서도 수만명의 시민, 학생들이 노대우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뜨거운 국민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군의 죽음은 과거 민주화에 희생된 열사와는 구분되어야..." 운운하고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강경진압을 '사수'하고 있는 그들은 우리에게 더할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다. 게다가 열사의 이념은 본선에 대해 제도연인이 죽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한다는 식의 '철부지'로 매도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양태들이 결코 무관심하거나 예상외의 현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대우정권 "공권력"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정권이었다고 그에 공생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제도 연인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줄 뿐이다.

본인 자제에 대해 '장안, 고부'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난 열사들이 자신의 가족, 젊음, 미래, 나아가 생명의 가치도 포기하면서까지 의지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현재의 국민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제 '노대우정권 퇴진'이란 명제는 해야 할

다한 당위성의 차원을 넘어 섰다. 연일 계속되는 학생·시민·노동자의 노정권 퇴진투쟁은 그야말로 통일단결투쟁의 원칙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어느 하나의 고립적이고 단절적인 투쟁으로서는 이 대명제를 이루어 낼 수가 없다. 이는 87년 6월의 위대한 역사와 88년 대선당시 아랍의 역사에서 검증된다. 또한 국민 대중의 이해와 정서에 근거한 투쟁이어야 한다. 폭력이나 비폭력이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 국민과 한사람이라도 더 연대하여 투쟁의 장소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라야 지금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방법인 것이다.

'사건의 원대해결'표명으로 결국은 '기회주의자'의 속성을 보이고만 있는 보수야당에 대해서도 철저히 비판해야 한다. 우리가 보수야당을 전인하고자 했던 것은 거기에서 정치적 희망을 걸고있던 국민과 연대하기 위해서였음을 다시 한번 각인해야 할 것이다.

내일은 민자당 창당 1주기가 되고 전노협 파업돌입 첫날이다. 여기에 맞추어 대대적인 단결과 투쟁의 결의를 모으기 위해 전대협중앙회에서 동맹휴업이 결의된 상태이다.

이제 시적인 것이다.

대중에 뿌리내림이 통일단결의 대원칙

잔인한 4월과 핏빛5월에 강경대, 김영균, 천세용학생이 죽었다. 지난7월에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광수씨의 시체가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탈락·강제부검되었다. 지금, 학생·노동자·농민등 4천만 민중에게 정권탈락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시국에서 지난날, 3일 학내총파업이 보여줬던 통일주의, 민주주의와 실천행사는 각계각층의 민중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폭압을 적시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노대우정권을 전민항쟁을 통해 환승에 몰리칠 수 있는 호기인 5월정권을 확실한 원칙을 세워 통일단결을 필요로 하는 때이다. 87년 6월항쟁이후 대선과정에서 민중이 분열하면서 다수의 민중들이 운동권에 실망해 느끼고 되었던 사실을 잊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처럼 단결의 소리가 높은 메일수록 통일단결의 원칙은 대중에게 깊이 뿌리내리는데 그 해결점이 있을 것이다. 근로대중이 생존에 뿌리를 둔다면 대중항쟁자들은 바로 근로대중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건 주지의 사실임에 틀림없다.

대중을 무수하게 의지해, 후시나 대중을

간파하고 '자기우월주의', '자기당착'에 빠지지 않는 것은 자아비판을 해보는 것은 분별과 비침지는 동양의 황학가들에게 단결투쟁의 대안이 아닐까 한다.

모든 투쟁은 대중과 함께 할때만이 그 성공의 열쇠를 따낼 수 있다.

대중의 정치적 감각은 세련되어있음을 지난4일 국민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충분히 느꼈을 것이다. 대표의 포신을 운 몸으로 막고 기회주의적 야당지도자에게 야욕을 보내는 것은 근로 대중이었다.

우리의 어린 동지들이 자신의 몸을 때우며 왜 한결같이 단결을 외쳤던가. 단결은 승패를 좌우한다.

'정치토론회'를 열고 이견을 수렴할 통로를 만드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속에서 후시라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대중의 입장인양 착각하지 않았는지, 대중을 지도대상으로 전락시킨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사회변혁의 최선배대라 지칭하는 청년학생이기에 자아 상호비판에 냉철할 수 있다. 하나됨을 위한 확고한 단결의 원칙이 후시나 대중이 빠져들지 않도록 살펴보고 대중과 함께 만들어가는 단결투쟁을 모범으로 세우는 것이 현정세를 승리로 이끌어나갈 관건이라 믿는다.

봄이 오면 우리의 산천엔 정령 진달래가 흐릿하게 핀다. 그 자욱한 꽃더미가 언제부터인가 불꽃이 되는 듯, 봄의 아릿한 정서로 다가오기보다는 한의 무더기로 여겨지는 건 웬일일까. 그 진달래라는 꽃은 위악에 착박한 토양에 자라는 꽃이라더니,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 토양이 너무나 매마르고 각박한 탓으로하여 순한 젊음의 피빛 생명이 그렇게 되살아 타오르려가 보나.

이현열의 정열한 희생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회색의 김포로 접어드는 가 싶더니, 역사의 대전환의 악축을 내걸고 출발한 6공은 종내 강경대학생의 처절한 죽음을 초래하고 말았다.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은 이제까지 정부의 개혁의지를 믿어보기에 안간힘을 쓰며 자제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만도 수서사건-페놀오염사건 등 국민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련의 사태로 하여 급기야 현정권의 무능과 비리가 절두침미 탄로되고 만 것이다. 이는 현정권이 근원적으로도 타격을 상실한 5공의 잔존적 기반에서 출발한 것이며, 따라서 민심의 향방에 흔들리지 못한채 위장된 개혁만으로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호도하고, 나아가서 공권력에 의한 존엄한 통치를 거듭해는 결과만이 분명하다.

현정권이 아직도 6.29선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앞서 법의 부당하게 유보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법일수록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불행히도 이러한 법들에 의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해 온 것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을 유린해 온 것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을 유린해 온 것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다.

노동운동권과 민중생존권의 박탈이라는 지탄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법과 제반 경제관계법을 손질해야 할 것이다. 노법현상에서는 6공 출발이후부터 누락되어 왔던 '불만'의 요인들이 해소·해결되는 추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으로 집단적인 분출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매사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경제구조의 탓도 있었고, 노사간의 협의과정을 통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론에 대한 쌍방의 노력이 진지

시사 논단

최순열

(본사 논설위원)



국민의 자제력엔 한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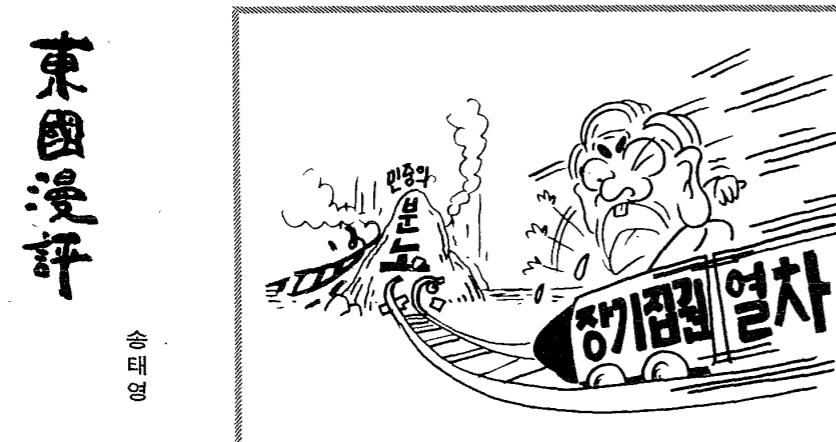
-민주 위한 구조적 개혁 있어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든지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부당하게 유보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법일수록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불행히도 이러한 법들에 의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해 온 것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을 유린해 온 것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을 유린해 온 것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다.

국민의 자제력엔 한도가 있다. 민주를 위한 구조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부당하게 유보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법일수록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불행히도 이러한 법들에 의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해 온 것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을 유린해 온 것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을 유린해 온 것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다.

하고 합리적인 전상에서 모색되고 있지 못하다. 그중의 우리의 산업구조가 국가경쟁의 차원에서 주도되어 왔기 때문에 노사간 일체감 속에서 협력을 도출해내는 통로가 법적 제도에 의해 조장되어야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주나 자본가의 보호막으로 경도한 법의 강령을 펼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만이라도 국민이 싫어할 만한 일은 미리미리 국가가 앞장서서 해소해 주어야 한다. 만에 하나 악용법에 대한 경제정책을 해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여야 모두 평범의 의외성을 앞두고, 또 차기 정권당파의 나름대로의 정치적 스키에 최대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속셈은 충분히 느꼈을 것이다. 대표의 포신을 운 몸으로 막고 기회주의적 야당지도자에게 야욕을 보내는 것은 근로 대중이었다.

우리의 어린 동지들이 자신의 몸을 때우며 왜 한결같이 단결을 외쳤던가. 단결은 승패를 좌우한다.



동문/칼럼

일주일에 한 번은 남산길에 오른다. 동국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에서 출판 잡지에 관한 강의를 하러, 학교가 있는 산비탈길을 오른다. 그곳은 4년 동안 훌륭한 스승에게 교육을 받은 모교이기도 한지라 많은 것이 들고 따스한 느낌도 있지만 남산에 대한 인상은 어쩔 수 없이 좋지가 않다.

서울에 온 후 다니던 학교도 남산에 위치하고 있었던 만큼 무슨 모임을 갖거나 또 가끔 만나는 여인과 오솔길을 거닐며 가난한 연인끼리의 밀어를 속삭이기에 애당초 남산에 대한 인상은 밝히고 말았다.

1957년 신록이 우기전 5월에 이슬만득득건에 황기하기 위해 함흥쪽으로 조르던 국민주 권운호투쟁위원회 주위의 시국강연회가 남산길에 있는 장충단공원에서 개최되었는데, 강연이 시작되자마자 정치경제들이 마미로 줄을 끌고 뺨뺨

이제 그 악몽의 화신과 같은 남산의 권부가 남산 주변을 떠난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제 그 악몽의 화신과 같은 남산의 권부가 남산 주변을 떠난다는 기사가 나왔다. 나는 동국대학교 가는 일 외에는 20여 년 동안 남산길 가지 않았다. 이는 해인가, 내가 귀찮았던 신한무역 자리 근처에 새로 생겼다는 '동보성'이란 중국집에 초점을 받고 음식대접을 받으려던 중 남산의 정취를 느끼고 싶었다. 남산은 서울의 중앙에 위치하여 천혜의 덕을 서울 시민에

1957년 5월 25일 국민주권운호투쟁위원회 주최 강연회의 테리사건을 보고

그 후에도 남산은 나에게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었다. 1971년 2월 초순, 내가 편지인으로 있으면서 발간한 월간 '다리'지 11월호의 학생특집의 글이 국외공산계열을 고문장악하였고 하여, 남산 밑



윤형두 (법무사 대표·법학과 63졸)

다시 남산을 가볍게 오를날을 그리며

에 있는 '신한무역'이란 건물이 철거된 취조기관에 가서 오솔길과 고개를 받은 후 서대문 구조소에 갔었다가 재빨리 무리로 물러났다. 10월휴일 때는 김동진교수의 에세이집 '길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책을 기념사 명부의 승낙도 없이 배포하였다고 하여 남산 중앙정부부의 지시할 신세를 지기도 하였다.

게 주는 은혜로운 산이다. 그런데 남산에서 사람이 찾아왔 다든지 전화가 왔다는 말만 들 어도 오글이 저러는 저런 곳이 있다. "남산 위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 함은 우리 기상일세"하는 애국가 한 구절처럼 정겹고 단단한 남산을 공포의 화신으로 바꾸어버린 사람들은 누구일 까?

들어오는 월요일이면 또 반갑게 맞이하는 대학원생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남산 기슭을 오를 것이다. 이제 처음 발견 을도 가벼워졌 것 같다. 저곳 지긋한 남산의 분위가 술기분 북적북적함을 바라보며 통일을 그려보았다.

목 먹골

- 석방 / 이영재 퇴진 / 노대우 사랑하는 동문후배 이영재군이 지난 18일 '어머니, 땅신의 아들' 영화상영장서 잠허가 아직도 저들의 장살아래 갇혀있습니다. 동문들의 애정 어린 관심바랍니다.
- 영재를 사랑하는 미림 남강 동문회
- 오는 5월9일 오전10시에 서초동 지방법원청사에서 법학과 87학번 김수경 선배님의 구형공판이 있습니다. 선배님의 건강과 노대우정권타도를 염원 합니다. -법과대 학생회일꾼
- 지금 캉캉한 창살안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용철 이형 / 하루빨리 석방될수있도록 우리모두 힘을 잊지않고 더 힘차게 투쟁합시다. 부디 몸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91후배가
- 추억만들기 회원모집
- 우리 지리교육과내 소모임인 추억만들기에서 첫 회원을 모집합니다. 영화와 연극관람, 그리고 뜻뜻한 사랑을 함께 하실 새내기들은 주저 말고 암실로 오셔서 신청하세요.
- 첫 영화관람: 91. 5. 12. AM10시
- 제목: '늑대의 울음'
- 장소: 대학극장
- 지난5월4일 국민대회에 응시하러서 우리의 정우시 총학생회장님께서 넘어져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빠른 회복을 바라며 앞으로 몸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총학생회장님을 응원하는 사범대 여학생우가
- 화창한 5월에 태어난 우리와 친구들-제국, 현주, 강미, 종미-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마음오르나마 장미꽃 한다발을 전하합니다. -지리교육과 2학년 한 친구가
- 미제의 생일을 축하하며...
- 미제야 / 5월12일 너의 23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축하한다. 봄의 여

동막! 광장

- 왕다운 아름다움과 기쁨이 넘치도록 기원한다. -가을의 기사
 - 경상대에서 알려드립니다.
 - 우리 경상대에서는 5월 혁명투쟁 비상체제로 돌입 했습니다.
 -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공안정국 분쇄를 위해 우리는 가열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 비상체제
- 선전계
 - 조직계 (7조일후)과토상항이며 모든 학우가 리본달기, 분향소분향, 사시적인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 정보관리 1.2학년 9-10일 동맹휴업
 - 경제학과 2학년 8-10일 동맹휴업 9-10동맹휴업
 - 4학년 9-10일 금주
 - 경영학과 1.2학년 9-10일 동맹휴업
 - 무역학과 1.2학년
 - 회계학과 1.2학년
 - 지금은 하나가 될 때입니다.
 - 오는(8일)은 도시락 갖고 동교투쟁과 철야농성을 하는 날이구요. 내일(9일)은 민자당 장례식을 준비하는 잔칫날이네요. 주위 학우들 어깨를 걸고 시정앞 최루탄가스를 마시며 기쁘게 꽃병과 정물을 던지자구요. -민족국민 90학우가-
 - 일일찾집을 합니다.
 - 주최: 야간학과 무역학과
 - 일시: 16일(목) 오후1시~9시
 - 장소: 동국관 5층로비
 - 내용: 구속된 기대학형(90) 영지금 마련을 위한 일일찾집.주심코 마시는 차관잔도 의미의 뽕시.
 - 동국대학교 컴퓨터 연구회 창립회
 - 오는 5월 26일은 DUCA의 7번째 창립제입니다.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재학중인 동.회원들께서는 모두모두 참석하시어 우리의 영원한 고향 DUCA

온 방골

- 의 생일을 축하해드립니다.
- 정신없이 북적대는 컴퓨터 연구회장
- 5월10~11일로 교육학과 1학년 MT가 있습니다.
- "교육학과는 하나다"라는 말이 비록 추상적이긴 하나 피부로 조금씩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 교육학과와 다수가 되고자 하는 肯像
- 다시 또다시...
- 작년 4-30 대구시정 정거농성으로 구속됐던 우리의 동지 권운호학우의 만기출소를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 형, 저희집으로 다시 오셔서 정말 기뻐요. 함께 투쟁할 날을 다짐하며 술이라도 한잔 합시다. -89후배들(알뜰말이)
- 기회는 찬스입니다.
-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신 학우, 혹은 컴퓨터가 너무 무서워 할 업무를 못낸 학우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컴퓨터전시 및 할인판매를 합니다.
- 학생회관3층 옥야실입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파워풀한 정유이가
- 혹시 아세요?
- 노래해 생에서 평우항쟁계승팀 새노래발표를 위한 '뽕뽕'이벤트에서 해방의 나라로'공연을 합니다. 5월16일 오후2시(문무관), 오후6시(녹야원)에 2번만 공연합니다. 많이 보러오세요. -여러분들의 귀뜸들이 이노가
- 우리로 한다 /
- 항상 앞서가는 교직원연구회 '탈레'에서 마당극 '일어서는 사람들'을 공연합니다.
- 오는 14일 오후3시 녹야원으로 홍겨운 놀이판 그러나, 진한 감동을 원하는 많은 사람의 참가를 바랍니다.
- 뽕뽕이 우리들의 막걸리를 푸짐하게 마실수 있습니다. -마당잡 흥성이가
- 국관을 엽니다.
- 동국연극회에서 134번째 정기공연은 원효4층 소강당 I에서 9일, 10일 양일간 엽니다. 제목은 '진오기 곳'. 관람비는 무료. 감동은 값을 매길수 없습니다. -아직도 하얀 동국연극회 일동
- 합체합니다.
- 타도되어야 할 정권에 의해 지난3일 심리공판에서 '장기질'동지가 기나긴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오는 17일 오전10시 경주지원1호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있습니다. 다같이 함께가서 재판 농자. -개구리작가
-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 며칠전(6일) 한명의 구속자가 더 생길만한 아슬아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수배중인 순호형이랑 현철이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 해 주시라. 돈이 없어도 백원씩만(+α) 적신 해주고 타십시오. -세트 원경이가
- 5월입니다.
- 5월은 은혜에 감사하는 달입니다. 한누리단원은 모두 모여 얘기합시다. 5월10일 오후5시 학생회관계실 엽니다. -부산의교 동문회장
- 쓰러지지 않기위해...
- 쓰러뜨리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는 동국불명 회원들은 동국불명회가 쓰러지지 않도록 9일날 있을 정기총회에 모여 주세요. 신나는 축제행사를 건건으로 총회를 엽니다. 9일 오후5시 원효관 401호입니다. -핀을 사랑하는 이가
- 사직·학산과 함께
- 성진동 야구장에서 보니까 자전거로 하이킹잡니다. 오원원들고 사직, 학산 등반은 다 모더라. 자전거 있거나 구한수 한수는 사람은 가지고 11일 아침9시에 야구장 앞에 모이소. -회장
- 환영합니다.
- 여성문제연구모임 꽃다지에 새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피겨 만근형, 중계 지인이, 영계 정민이·성욱이까지 너무나너무 환영하면서 담에 술사들께. -영계라고 우기는 윤정이가

재단이사장 고사



이사장 오록원

오늘은 우리 東國大學校가 개교 8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1906년 明德學校로 출발한 동국대학교는 살아서 다스리던 한국불교 교육의 근대적인 발전으로서 그 연민한 전통은 우리 사회의 번영을 이끈 학문의 최고 전당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국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서 큰 업적을 세운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국교육의 근본은 1천6백년 한국불교정신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한국불교의 본질이 가장 인간중심적이며, 한국문화 자체인대서 무엇보다 우리 동국을 무한한 긍지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동국만큼 민족의 개화에 있어서 그 선구적 역할을 다하고, 일제하에서는 자주독립을 위하여, 그리고 해방후에는 민족·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앞장서온 대학도 흔치 않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본인은 첫째로, 동국의 건학정신이기도 한 '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보살정신을 오늘에 다시 승화시켜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갈등과 모순, 사회불안, 분단조국 등 본질적으로 개교당시와 큰 차이가 없는 어려움을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서 학문적 추세 또한 보다 새롭고 폭넓은 연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국이 세계속의 대학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특색있는 전통과 더불어 각 분야에 걸쳐 취임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자기개혁과 화합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한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지도자의 역량 못지 않게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의 발전 지향적인 자기개혁과 화합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동국의 전통과 자질을 살리는 길은 바로 구성된 모두의 발전적인 시각과 참여, 그리고 화합에 있음을 일깨워 나가야 겠습니다.

네째로는 개교 1백주년을 생각할 때 앞으로의 10년은 다른 대학의 몇배에 해당하는 만큼의 도약을 요구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재단은 재단내부로부터 최선을 다해 대학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하나 하나 진척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들께 신뢰와 긍지를 가지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기상으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1991년 5월 8일

개교 85주년 기념사

총장 식사



총장 민병천

오늘 이 자리에 임석하여 주신 재단이 사장 오록원스님, 그리고 이사님들 동창회 임원과 교수, 교직원,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개교85주년 기념일을 맞아 경하하심서 감사드립니다.

대학은 덕성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이 덕성은 인간 양심속에 내재하고 있는 자율성의 구현입니다. 또한 자율성은 민주와 자유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게 하고요, 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인간 본연의 자율성의 개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학은 지혜롭게 자각하고 자비로써 봉사하는 인격자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혼돈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학은 지혜롭게 자각하고 자비로써 봉사하는 인격자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은 고고한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은 현대사회를 추스르고 변화시키는 집적력이 되어야 하며 난제들을 해결하는 최첨단 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국대학교도 이상과 미래를 갖고 현실속에서 조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이상과 미

우리는 숨겨진 잠재 능력을 발현시키는 데 전력하여야 합니다. 향후 5년이면 동국은 90년이 되고 또 2006년이면 1백주년이 됩니다. 역사가 오래다는 것과 장수는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미래로 지향시키면서 창조하는 동국인이 되어야 합니다. 넓은 길잡이를 깨는 아들이 없으면 발전, 진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즉시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업보다 어려운 명예를 받는 발전과 명성의 유지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부흥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금 문명의 민족사학의 지위를 되찾을 것이며 세계속의 대학으로 우뚝서는 100주년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교일을 맞아 10년, 20년, 30년간 이 대학에서 애쓰신 여러분과 타의 모범을 보여 표창의 명예를 받는 분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리고 또한 우리 동국이 면하늘에 나르기 위하여 지금 이 땅에서 발전의 힘을 함께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 하기를 축원하면서 기념사를 마칩니다.

1991년 5월 8일

개교 85년...새로운도약 다짐

오늘 기념식 갖고 장기근속자 등 표창

개교 85주년 기념식이 오늘(8일) 오전11시 오인강(녹원)재단이사장, 민병천총장을 비롯한 교수, 직원,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삼시외래, 정각원장 최현각(선학)스님의 발원문 봉독, 조희영(경영)기획조정실장의 학교연혁보고, 장기근속자 및 공로자 표창, 총장기념사, 이사장고사, 동창회 장송사 순으로 진행되며 정오부터 다량관(2층 교직원식당)에서 기념연회를 갖는다.

한편 경주캠퍼스는 오늘(8일) 오전11시 원효관(소강당 II)에서 신형재부총장을 비롯한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30년, 20년, 10년 장기근속자 및 공로표창이 있겠다.

△80년 근속표창=△홍순옥(정지외교학)
△20년 근속표창=△민병천(정지외교학) △김성진(토목공학) △백우석(역경원 업무부장) △이시우(의료원 건설과장) △문기근(경주 캠퍼스) △김지현(총무과) △김진영(예술대학 교학계장) △이한기(총무과) △박동현(총무과)
△20년 근무=△김대건(체육교과)
△10년 근속표창=△최희용(영어영문학) △김현(영어영문학) △최문희(사학) △이종준(수학) △성용진(화학) △수준규(사학) △유종환(회계학) △이금석(전자계산학) △염준근(공예학) △김용기(수학교육) △한용환(국어교육) △김형수(경주 국어국문학) △박근(경주 국어국문학) △정내민(경주 영어영문학) △배상현

(경주 한문학) △김갑주(경주 국사학) △최영조(경주 미술학) △신종문(경주 수학교육) △박준희(경주 행정학) △김길원(한의학) △최달영(한의학) △이광우(교무계장) △이천중(학생계장) △문옥래(한방병원 서무계장) △김희배(정보산업

대학원 교학계장) △안재봉(경영대학원 교학계장) △이건배(관계계장) △김동원(도서관 서무계장) △송일기(도서관 열람계장) △송재영(과학관 관리계장) △김용기(사무처 관과장) △안석호(경주 학적계장) △이철우(경주 학생계장) △이

중국 사회과학원과 교류합의

중국문화전환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중국 사회과학원과 본교 불교대학·불교대학원과의 학술교류가 지난 1일 구두합의에 이르러 중국 불교와 관련한 문헌, 미술 등의 학술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방한한 중국 사회과학원 아세아·태평양지역연구소장 황치중(황치중)은 지난 1일 오전11시30분 민병천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불교문화연구, 교수 상호 방문을 통한 학술교류에 합의했다.

이와 황교수는 이날 오후 1

연습원 야계 사방덱 준공

농경지유실방지·시정각교육장 활용

본교소유 경기도 남양주군 일대 연습원에 농업용수공급과 교육장로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야계사방덱이 지난날 30일 준공되었다.

총사업비 2천2백53만8천원, 총사업량 4백미터, 총사업기간 50일, 동원인원 9백57명의 규모로 건설된 이번 사방덱은 본교 임학과 소속연습원관리소가 91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청의 지원으로 건립했다.

한편 연습원측 관계자는 이번 덱 건설로 얻을 수 있는 잇점으로 "하천의 범람과 도모 및 농경지가 유실되는것을 막는것은 물론, 각종 토목공법으로 시공되었기 때문에 본교생은 물론 서울, 경기도 일대의 학생들에게 시정각교육장으로서도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어학과 학생모집

1. 모집과정 및 학과
가. 석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조경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체육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나. 박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직)275-3256 (교)267-8131~9(2253, 2254)

정보대학원 특강

정보산업대학원(원장=인사명·정보관리학)은 춘계 정보특강이 이용대(한국정보산업협회장)씨의 '정보기술과 의식구조 개혁'을 주제로 오는 13일 오후 6시30분부터 동국대(L306)에서 열린다.

학교채 1억여원 판매

전 동국인 계속 호응바래

본교 재정난해소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학교채는 지난 1일 현재 총2백87명(대학원·문과 76명, 학부원 1백32명)에 1억여원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채 판매는 교육용일비, 시설확충, 도서관 장서구입에 사용되며 총 발행금액은 14억8천만원이며, 발행단위는 5

망월사지서 유물 1백여점 박물관 "조선시대 사찰연구에 도움"

문명대(미술학과)박물관장을 비롯한 박물관 연구원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망월사지서 유물 1백여점이 출토됐다.

중수불사(重修佛刹)를 계기로 실시된 이번 발굴작업에서 정면18m, 측면16m(7칸×5칸) 규모의 법당을 비롯한 4개의 건물지가 발견되었는데, 문명대장은 "망월사지는 조선시대 사찰의 승존지와 건물형태와 규모를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발굴조사의 의의를 평가했다.

불교학술 세미나

불교문화연구원 학술세미나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불교 다목적(화강)제도의 제정'을 주제로 오는 17일 오전10시부터 동국대(L101)에서 열린다.

우리나라 국토활용을 이어오며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 일반상용에서의 화강제도 도입을 토론하는 이날 세미나는 오창석(지리교육)교수의 '우리나라 국토의 현황과 문제점', 木村滿孝(동경대)교수의 '불교의 경제제도와 그 일본적 전개' 등 4개 소주제의 기조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보대학원 특강

정보산업대학원(원장=인사명·정보관리학)은 춘계 정보특강이 이용대(한국정보산업협회장)씨의 '정보기술과 의식구조 개혁'을 주제로 오는 13일 오후 6시30분부터 동국대(L306)에서 열린다.

교수 동정

△전영화(미술학) = 오늘 10일부터 17일까지 '한국서화작품

매 지난 카네이션

베이날이 다가오면 간단한 문안편지와 함께 카네이션 한 송이를 사서 시골의 어머니께 부쳤던 것이다. 한때 그런지가 늦어져 어머니가 지나고 다음 날에 도착했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는 철 지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다니면서 이웃들에게 아들 자랑을 했다는 것이다. 부모의 심정은 다 그렇다.

정보대학원 특강

정보산업대학원(원장=인사명·정보관리학)은 춘계 정보특강이 이용대(한국정보산업협회장)씨의 '정보기술과 의식구조 개혁'을 주제로 오는 13일 오후 6시30분부터 동국대(L306)에서 열린다.

대학원 학생모집

1991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과정 및 학과
가. 석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조경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체육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2. 모집인원: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0명
3. 시험과목
가. 석사학위과정
① 시험과목: 가) 영어 나) 전공 다) 수필고사 나. 박사학위과정
① 시험과목: 가) 영어 나) 전공(공통, 세부) 다) 제2외국어 라) 수필고사
4.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91. 5. 29(수)~6. 5(수) 17:00까지
나. 원서접수기간: '91. 6. 3(월)~6. 5(수) 17:00까지
다. 접수장소: 본 대학원 교학과 라. 시험일시: '91. 6. 14(금) 오전 10:00부터
마. 합격자 발표: '91. 6. 25(화) 오전 11:00(예정)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직)275-3256 (교)267-8131~9(2253, 2254)

동국대학교 대학원

범국민대책회의에 참가하며

강경대, 김영균, 천세용.

이 고은 후배님들의 이름 앞에 우리 '전국대학민주운동대표자협의회(전민동)'는 삼가 머리숙여 조의를 표하며, 박승희 양의 쾌유를 빈다. 아울러 사회 각처에서 나라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열망하는 전민동 회원들의 뜻이 지금은 고인들의 부활과, 생명의 기로에 서 있는 후배님의 소생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에 있달아 있고 투쟁의 대열에 함께 나설 수 있음을 확신하며 전민동은 그 뜻을 모아 고 강경대이사장님, 유길원 대표님과 공인통치총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에 참가하고자 한다.

무엇이 더언발판과 물대포가 아우성치는 시정앞을 '해해 민자당 / 타도 노태우'의 함성으로 물결치게 하는지 정권은 바로 보아야 한다. 양심수를 재갈물러 가두고, 생신행정의 노동자를 직업병과 각종 산업재해의 지옥 속에 방치하더니 마침내는 국민과의 전쟁 선포로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살인행위를 자행하고야 말았다. 너무나 간단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이 비뚤어지는 정권하에서 미래는 없다고 국민은 외치고 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거짓과 무능의 현 정권은 물러나야 한다고 국민은 항거하고 있다.

수서비리, 폐물방류, 원전레이온 직업병 사건에서도 그랬듯이 내부 부장관의 재빠른 경질과 대통령의 소극적 사과표명으로도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정권의 태도는 안일하다 못해 너무나 무책임하다. 노재봉 내각의 총사퇴와 안호모 전 내부부 장관, 시정규정, 치안본부장, 관할경찰서장, 지휘중대장의 구속처벌은 최소한의 정치적, 도덕적 책무이며, 근본적으로는 노태우씨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국민적인 분노와 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전민동은 다시 한번 주장한다.

거듭되는 실정과 학정, 강경대 일사의 살인행위를 책임지고 노태우씨는 대통령직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또한 고귀한 넋들의 죽음을 정략적 차원에서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려는 집단이 있다던 이는 명백히 국민살인에 대한 방조행위에 다름아님을 명백히 하며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후배님들의 아까운 넋을 보듬어 안고 우리 전민동은 누구보다 앞서 투쟁의 거리에 우뚝 설 것이다. 그것만이 가장 애절하고도 진정 필요한 우리 시대의 진혼가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고 강경대 님, 김영균 님, 천세용 님의 부활과 박승희 님의 소생을 간절히 기원하며.....
1991년 5월 6일

전국대학민주운동대표자협의회
동국대학교 민주운동회

영어 수필경시대회 안내

- 영자신문 The Dongguk Post에서는 학부생들의 영어표현 능력을 장려하기 위해 제 6회 영어수필경시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학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1. 일시: 1991년 5월 14일(화) 오후 5:00
 2. 참가자격: 본교 학부 재학생
 3. 신청기간: 1991. 5. 7~5. 14 오후 5시까지
 4. 신청서배부: The Dongguk Post 편집부 (학생회관 지하1층)
 5. 시상종목: 최우수작 1편(상장 및 상금 10만원)
가 각 2편(상장 및 상금 각 5만원)
 6. 심사위원: 본사에서 따로 위촉함
- * 기타 자세한 것은 The Dongguk Post 편집부로 문의바랍니다.

학생회 강화의 방도 '학회'

학문적 지향감이 널 생활 공동체

지난호에는 '소모임이란 무엇인가'로 미약하게나마 학생회 강화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대중조직의 사상적 근원을 서술하였다. 이번 글에서는 전공학회와 관련, 운영원리, 대학내의 문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학회란 무엇인가. 학회에 대하여 학생회간부들내에서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 '학생회를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방도이다'라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으나 현 동양의 학회 건설의 상황은 무성한 논외에 비해 기대에 못미치고 있음이 사실이다.

학회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제인식과 구체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재 학생회의 발전을 모색하는 가운데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단 현 학생회가 시급히 이뤄야 할 주요과제와 연결시켜 학회의 중요성·활성화의 필요성을 볼 수 있다. 먼저 학생회가 민주적 운영 방식을 가진 진정한 학우대중의 자치조직이 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강화와 관련된 학회활동의 강화와 관련된 학회의 소모임은 학생회 강화에 이바지 하는 학생회내 소모임으로 서게하는 위상정립의 필요성이며

다음으로 다양한 학우들의 이해를 학생회내에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문별별 사업의 확대와 학우들의 자발성에 근거한 소모임 건설이 확대이다. 이는 학생회의 대중성획득과 학생회의 조직적 근간으로서 각각 다양한 소모임을 강화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관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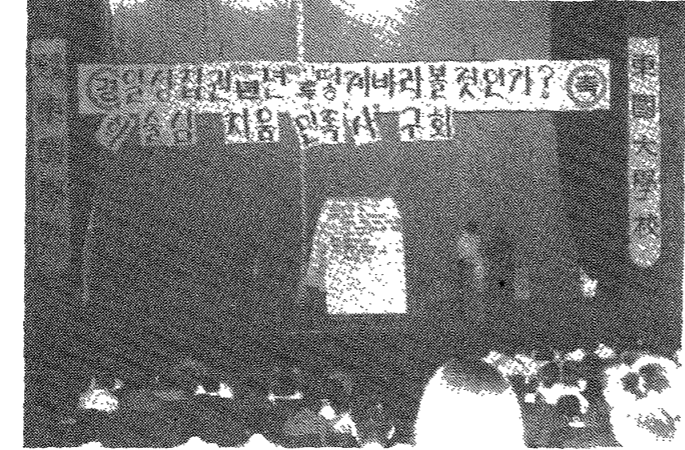
따라서 학회는 극의 활성화가 학생회전반의 변화·발전과 상호관련을 맺고 있으며, 학생회활동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속에서의 학회사업의 배치가 요구되어진다. 또한 학회활동이 왜 제기되며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집중된 고민없이 즉 자치적이고 일회적인 사업을 하였던 이전의 오류의 극복과 회계내에서의 체계적 전방의 수립, 사업주체의 전문성 확보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회는 85년 총학생회부활 이전부터 스테디형식으로 존재해오다 학생회부활, 87년 이후 학생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며 대부분 학생

회내 사회과학 형태로 공개화된다. 이와함께 일반학우들도 그들의 학문적 요구의 실현을 과학회내로 요구, 이들의 참여공간이 부분적으로 주어지게 됐지만 여전히 학회내의 내용적인 편협성, 운영의 비민주성등은 일반학우들은 학회에서 떨어지나가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학회내의 사회과학적인 면도의 편협적 내용성 등은 고수되고 있었다.

그러나 학우들의 학생회에 대한 의식이 발전하면서 학회의 위상은 재정립, 전문성과 고유한 길을 가진 학회건설의 움직임이 생겨났으며 최근들어 부분적이나마 체계적 학회사업, 전반적 활동의 고양을 통해 학우들의 학술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민주적 생활공동체로서의 건설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학교의 경우 지난 89년부터 학회건설이 제기되



◇학회는 학우대중의 학문적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을 그릇이며 이는 학생회 골간체계를 발원 해줄 대중 조직이다.

로 투쟁현장으로만 돌아세우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듯 1학년 학우대중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실지 학습내용에 있어 확인적 교육내용을 전개되면 자연히 학회는 학회원들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학생회내에서의 학회의 지위의 설정문제도 들 수 있다.

따라서 학회강화의 대안은 학회의 조직적 지도, 지원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부터 논의해야 한다. 까마다 발전과정이 다른 학회에 대한 조직적 지원으로서 학회내에서 학회의 이해와 요구를 수행하고, 대중조

는 정도 들 수 있다. 이는 각부들의 관성적인 사업적중, 학우들속에서 그들의 학술적 이해와 요구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않는 것이다. 위에서 학생회내에서 학회에 대한 올바른 전망과 대안이 심도있게 고민되지 못하고 있음은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학회강화의 대안은 학회의 조직적 지도, 지원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부터 논의해야 한다. 까마다 발전과정이 다른 학회에 대한 조직적 지원으로서 학회내에서 학회의 이해와 요구를 수행하고, 대중조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친목의 소모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렵고 힘들고 학생회사업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동양의 학회건설은 그 수준 내용에 있어서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각 과별차원에서 학회활성과 노력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학생회 전반의 사업혁신을 기반으로 일반학우들의 소모임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후 이러한 학우들의 진출을 회계내에 실현시키고 학회활성을 이루기위해 첫째 이미 과내에 존재하는 개별 학회의 내용성을 강화시켜내는 것이다. 이는 학우들

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체계성·지속성·전문성을 갖는 학회를 건설, 이를 모범으로 전파시키는 것이다. 둘째, 과내에 존재하는 학우들의 학술적 요구를 수행할 학생회사업의 혁신이다. 이를위해 내용성의 강화, 학회간의 체계강화를 이루기위한 공동학술발표회, 학술지발간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적인 의사수렴 통로로 설문조사, 공청회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부단한 발전을 모색하는 학생회에 학회는 그 내용적인 전문성, 다양성등을 통해 학생회를 보다 광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학생은 단순한 피교육자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인의 품성을 학회속에서 체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에서 변혁운동의 토대로 자리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부)

학회지로 본 동아내 학회

최근들어 학생회강화의 한 방도로서 학회의 건설 및 활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학우대중을 학생회로 굳건히 결집시키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생회강화가 몇몇 의의있는 선동가나 집행부의 일원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다 대중적이고 쉽게 학우들과 연대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학회는 학과 구성원들의 과교육 커리큘럼외에도 학문의 욕구 등 자생적인 욕구를 담보해 낼수있는 모임으로서 자연스레 학우 대중과의 연대과 결집을 이룰수 있음은 물론이고 학생회의 정치의식의 과적의 경우 기본적으로도 건보적 학습을 매개로 하는 생활단위인 학회와 유대관계는 사

의 문헌반의 '글다리기', 사법대 가정교육과의 '가정학회지', '대 전자계산학과 컴퓨터연구학회'의 C.A.P.S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주로 학생회의 학습부나 편집부 산하에 소속되어 학생회 집행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있었는 가 하면, 학회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그야말로 순수학회도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학생회가 학회의 수준을 향상적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에는 있으나 학회 자체내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학우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올바르게 수행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학생회와 학회의 관계가 모호한 것으로서 학회의 단결과 유대관계를 전

문과대 국문과의 경우 학회가 학우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문성을 가진 자체 활동을 학생회와의 유대속에서 나아가고 있다. 특히 법대의 '민주법학회'의 경우에는 학우들의 높은 참여도를 가질 수 있는 전공학회의 활동과도 병행해서 정기적인 세미나와 국가보안법등의 악법철폐의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등도 거처면서 학우들의 다양한 자생적요구를 목적의식적으로 모아내고, 그들의 문제의식을 상승시켜냄으로써 학생회와의 유대관계 지속과 더불어 학회지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회는 자기 생산 구조를 가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즉 학회지가 매년 같은 문제점이나 고민을 학기초면 다시

재생산 구조 부재가 대부분

학회지로 축적 성과를 쌓아야

학회전반에 관한 문제의식이 쉽게 현실과 결합할 수 있어 새로운 투쟁공간으로서 학생회 강화에도 기여한다. 학회지는 이 모든 학회의 수준과 전망을 대변한다. 또한 그 역할로써 매년 학회가 겪고 있는 혼란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내용의 풍부함과 운영의 원리를 제공함으로써, 학회의 강화를 기여한다. 그러므로 현 동아내 학회의 수준과 전망을 알아 볼려면 학회지의 발전에 여부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학회지가 발전되는 학회가 동아내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문과대의 경우 영어영문학과

반복하는 등 학회발전을 위한 축적된 성과를 가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듣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학회지 발간의 미흡에 기인하고 있다. 여기서 바로 학회지가 학회의 수준과 전망을 대변하는 중요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회지발간이 비교적 미흡하고 학생회와의 관계가 모호한 동아내 학회의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학회발전을 위한 급선부는 학생회의 지도에 의한 학회와의 공존하는 운영방식과 더불어 학회의 한계에 대한 학기사업의 수준을 정리, 기록하고 대변할 수 있는 학회지 발간일 것이다. (송태영 기자)

반복하는 등 학회발전을 위한 축적된 성과를 가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듣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학회지 발간의 미흡에 기인하고 있다. 여기서 바로 학회지가 학회의 수준과 전망을 대변하는 중요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회지발간이 비교적 미흡하고 학생회와의 관계가 모호한 동아내 학회의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학회발전을 위한 급선부는 학생회의 지도에 의한 학회와의 공존하는 운영방식과 더불어 학회의 한계에 대한 학기사업의 수준을 정리, 기록하고 대변할 수 있는 학회지 발간일 것이다. (송태영 기자)

학우대중의 이해에 근거한 건설 필요 학생회체제로 인입시킬 노력 요구돼

면서 각 단위 학생회에서는 이를 목적의식적으로 준비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학회건설에 있어 명확한 자기 내용성을 갖고 운영되는 학회는 보기 힘들다. 그러나 몇몇 유지되는 학회에서도 지도주체의 입에서 "1학년 후배들이 잘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열의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의 하나로서 먼저 학회내 학습내용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현재 동아의 학회를 보면 고학원의 지도가 거의 부재한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학회가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때 지도주체의 지도성이 부족하거나 학회원들의 1차적 요구(전반적인 기초 학습)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역관향으로 학회는 학습을 통해 1학년의 의식을 개조하고 무조건적으

이때 그만큼의 활동의 수준이 되지못하는 학회원은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 이외에 학회가 학생회 사업과는 별도로 활동하는 조직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학회가 학습을 하거나 다른 일상활동을 수행하는데 과정적 일정과 어긋난 경우 '나를 위한' 식이리든지 혹은 학회원의 이기적활동을 주장하는 경우 학회의 '대중적 토대 구축'으로서의 학생회강화에 부합하는 의의는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존의 학회들을 목적의식적으로 회계내에 인입시킬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우대중들의 학술적 요구는 높으나 이를 수행하고 학회체계속에서 이들의 지향을 담아내야함에도 기존 학생회간부들이 이를 조직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적으로서 학회의 지향은 발전시켜나갈 방향의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과내 학회장 연설회의의 안정적 운영, 학회장의 파운위에 참석을 통하여 학회의 지향을 회시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음으로 학생회는 과내의 자생적 소모임의 수준과 현황을 항상적으로 파악하고 다면적인 지도를 내내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학회의 강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생적 소모임의 지도와 지원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공학회의 경우 무조건 '만들고 보자'식의 무차별적인 조직건설은 지양되어야 하며 자신의 전공의 사회적 의미, 올바른 전공관의 확립이 선행 되어야 하며 그밖에 다양한 소모임을 항상적으로 파악하고 올바른 내용의 마련이 고 민되어야 한다.

체계성·지속성·전문성을 갖는 학회를 건설, 이를 모범으로 전파시키는 것이다. 둘째, 과내에 존재하는 학우들의 학술적 요구를 수행할 학생회사업의 혁신이다. 이를위해 내용성의 강화, 학회간의 체계강화를 이루기위한 공동학술발표회, 학술지발간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적인 의사수렴 통로로 설문조사, 공청회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부단한 발전을 모색하는 학생회에 학회는 그 내용적인 전문성, 다양성등을 통해 학생회를 보다 광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부)

경실련주최 '대학강좌'

치하는 유료코리너를 몇 사회민주주의 운동체력들의 고민과 모색방안을 알아본다. **90년대 한국의 정치, 사회적 변화방향과 의미=5월20일·한상진(서울대)교수의 연설이 재검토되고 있는 정치사회적 질서는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점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해 본다.**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실천 방법론의 모색=5월23일·서정석(경실련) 사무총장의 현실에 대응하는 이론과 방법론은 파악하고 민주세력의 고립화되도록 극복해내고 국민과 함께라는 힘있는 대중운동의 가능성을 알아본다. 한편 27일부터 28일까지는 1박2일간 M-T를 통한 자율적 종합토론회의 새로운 학생운동의 모색이 진행된다.

학술정보

성결과 전진을 위한 '경제적 실천연립'주최로 대학생 강좌가 17일부터 오후5시까지 매주 월·목요일 오후6시 경실련강당(층도5가 서울신덕은 행 4층)에서 열린다. **소련과 중국의 변화흐름과 의미=5월7일, 박세일(서울대)교수의 사회주의 대개혁의 진원지 소련이 국민과 보수세력 사이의 혼란, 전안문시대 이후 개방화되고 있는 중국의 사회흐름을 분석하고 그의미를 본다.**

유럽권의 변화와 사회개혁의 대응=5월9일, 안병영(연세대)교수의 통틀, 통구리파의 민주개혁으로 유럽의 반쪽을 지명하던 질서의 혼란, EC통합을 향한 서구리파사회의 상당한 변화 등 변화와 흐름에 대

대우가 있습니다. @

"아버지가 왜 기쁜지 아니?"

▲ 아버지가 일하는 공정을 찾은 윤철균.
▼ 대우중공업 신협과점 (소재:서울분부 생신1과)과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아들 신윤철균.

"아버지가 일하는 환경을 둘러본 소감이 어찌지 궁금하구나. 아마 네가 대학으로 나갈 때하고 보면 것들과는 달리 많은 부분이 다를게다. 소재생산분야에서 일을 시작한 지도 어언 30년, 처음으로 이 분야에 발을 내딛은 50년대 후반만 해도 기껏해야 떠받치거나 농기구 소재생산이 고작이었어. 그러던 것이 이제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항공기나 자동차 엔진 소재를 만들고 있으니 엄청난 발전을 이룬 셈이지. 이곳이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사반세기를 이어왔듯이 아버지가 살던 이 소재생산분야 발전과 함께 해 왔단다.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밤을 새우며 연구도 많이 했지. 그래서 남들로부터 베테랑이란 소리를 듣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더 배우고 더 많이 연구해야 한다고 믿어. 그게 바로 대우의 정신이지. 내 삶의 철학이지."

이만큼 큰 볼보니 아버지는 더 기쁘다. 내가 시작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대견스럽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진지한 모습도 그렇고... 지난 우리세대 많은 사람들이 비친 땅과 희생을 오롯이 받들어 있었던 것처럼 부디 너도 대우가 공부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더욱 멋진 내일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구나."

다른 사람의 말과 노력을 존중하며, 서로 이해할 때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은 환경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우리의 세상살이 속에서, 자신의 분야를 개척하며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과 함께-

대우가 있습니다.

◆예복협, 성원들의 목소리 얼마나 담아내고 있나

단순한 친목차원 못벗어나

학생회강화라는 측면과 예비역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것으로 예비역·복합협회의(이하 예복협) 건설이 지난해부터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실제 예복협의 모태는 87년 당시 반독재투쟁에 자주적으로 앞장섰던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건설이 되는 하였으나, 대중적인 토대없이 소수위주의 정치사업 일환으로 88년부터는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90년 말부터는 서서히 움직임으로 인한 성과로 현재 예복협이 건설돼 있는 것은 국문·윤리·노동·입학·농생·무역·경제·외교·국교·교과 등이 있으나, 이들의 예복협 성격은 친목도모위주나 소수위주 사업에 머물고 있어, 진정한 대중조직으로서 예비역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 정책해내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군복무 3년을 마치고 사회진출을 목전에 둔 예비역들의 이해와 요구, 의식경도로 실로 다양하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모아지는 것이 취업문제이다. 기존의 학생이나 졸업준비위에서 한 취업특강은 예비역들이 원하고, 사회에서 원하는 '특강'이었다기 보다는 형식이 그치고 말았다. 또한 복학해서 낯설은 교정에 정을 붙이고 있을 모인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일부는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거나, 또는 정치적인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은 학생회사업을 예비역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대령해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예비역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학생

회사업에 반영하는 과나 단대, 중학교이 부재하는 것도 더욱더 큰 문제점이다.

현재 동아에서 모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상대의 경우에는 예비역들의 요구중에 하나인 취업문제를 4학년 과대표들이 모여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한다. 취업을 앞둔 예비역들에게 회사에서 요구하는 작성 검사·인성검사를 시중에서 8천원에 실시하는 것을 친원에 실시하고 건강진단도 단채로 실시한다고 한다. 경상대 4학년 과대표의 모인은 과대표들이 갖는 학내대표적인 성격과 운위에 참가하여 학생회사

경우 많은 예비역들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하려는 노력중에 문제의 원점이 재단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기도 한다고 한다. 자연스레 예비역 스스로가 교수채용문제해결에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사회적인 의식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다양한 의식의 차이가 있고 공통적인 특징은 현역보다 보수적이란 것이다. 그래서 쉽게 정치투쟁에는 나서지는 않지만, 군대내에서 배운(?) 의리는 의리로서는 갖는다는 정의감이 뛰어나 불의를 느끼면 참지 못하고 나서게 된다

전경로에서 예비역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며 예복협 건설·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120일 전투'의 이종구 국방부장관의 발언등에 비추어 볼 때 한 반도의 평화가 담보되지 못하는 현재, "군복무 경험에 있는 예비역들이 전대협의 군복무단체투쟁에 앞장서야 된다"고 주장했다.

운동의 대중화를 위해서 예복협의 토대마련은 물론 시급하다. 하지만 그것은 친목도모의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더라도 예비역들의 이해와 요구를 조직적 차원에서 담아내어 실현시키는 방도가 필요한 것

취업등 공동된 관심과 인식전환 함께 도모해야 이해와 요구 수렴하는 대중조직 돼야

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4학년의 대부분이 예비역·복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상준(무역4)군은 "4학년들의 요구를 쉽게 관철시키려 하니, 자연스런데 4학년 과대표모임의 정례화로 조직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며 모인 정례화의 배경을 말한다. 실제로 한과 50명의 요구보다 한 단대 250명 요구하는 것이 사업을 풀어나가는 것에서 쉬웠다 는 얘기도. 또한 체육대회등을 통한 친목도모의 모인도 계획중이며, 강의내용에 관심 있는 예비역들의 요구도 모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강의가 부실할

는 것이다.

연세대의 경우 강경대군 타살규탄집회에 예비역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야 하겠다.

예복협 건설과 전망에 대해 이상준군은 "예비역들의 이해와 요구가 조직속에서 해결될 때만이 예비역 스스로 조직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며 예비역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정치사업을 요구하는 학생회사업상품을 일정정도 비판하기도 했다.

충청생회 인권위원장 이세운(무역·제작)군은 "동아의 대중운동발

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과에서부터 건설되는 예복협을 중심으로 예비역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운위를 통한 학생회사업의 하나로 집행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것이 없이 성급한 '형식적인' 행사를 진행하여 정치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또다시 조직의 와해라는 헛수고가 되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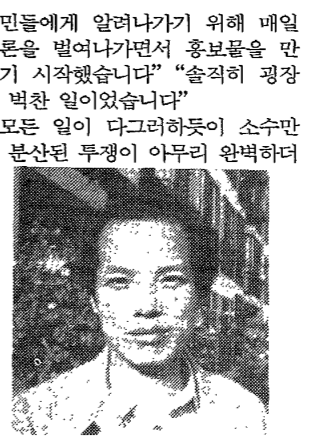
이제는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들으며 '바로 뛰는 간부'와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학생회사업에 반영시키려는 '자주적인 예비역'들의 만남 속에서 예복협건설의 토대가 구축될 시기인 것이다. (양승희 기자)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평택지역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미군기지 이전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곳도 없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평택에서 미군기지의 존립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미군은 한반도 어디도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0년 6월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가 발표된 후 평택지역에서는 즉각적으로 11월4일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을 결사반대하는 시민모임' 창립대회를 치르고 지역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속에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투쟁의 깃발을 세웠다.

이에 그간의 상황을 알아보고자 시민모임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윤현수(중소기업은행 평택지점 은행원)씨를 만나 일상생활속에서 느끼는 미군기지 이전 반대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평택기지이전 반대한 윤현수씨

"평택교로를 75년에 졸업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마친후 은행에 임명될 때까지 한국과 미군기지에 대한 별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어릴적부터 미군들이 있는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미군에 대한

주인들에게 알려나가기 위해 매일 토론을 벌여나가면서 홍보물을 만들기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벽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그려하듯이 소수만의 분산된 투쟁이 아무리 완벽하

라도 강한 의압에 의해 쉽게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생각하고 여러방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 지역발전현안에 대해 많은 것들을 논의했다고 밝힌다.

평택에 살며 이곳 평택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시민으로 시작되는 '평택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유인물을 5천부정도 인쇄해 지역주민들에게 일간지등에 끼워 용산미군기지 이전반대에 대한 이유들을 주민들에게 하나하나 알려 나갔다. 주민들의 호응은 높았다.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투쟁의 깃발을 세웠다. 이에 그간의 상황을 알아보고자 시민모임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윤현수(중소기업은행 평택지점 은행원)씨를 만나 일상생활속에서 느끼는 미군기지 이전 반대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이나라 민족을 살려 내는 일은 주변에서부터 해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평택경찰서 정보와 행사들의 지속적인 탄압은 예상외로 빨리 다가와 미군기지 평택이전 반대서명운동을 벌이던 이은우 사무국장과 김용한 공동대표가 강제연행되기도 했구요. 저같은 경우 직장인 은행까지 찾아와 공안 검사에게 알려졌다는 협박까지 서슴치 않고 탄압을 해왔습니다"

미군범죄피해의 온상이 되는 동시에 현재 미군사령부가 있는 용산 및 이태원지역의 향락, 퇴폐, 오염 문화의 동반이전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약과 AIDS 성병등으로 대표되는 오염문화의 유입이 자라나는 청소년과 후세교육에 끼치는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기지이전은 절대로 반대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택지역이 주한미군의 심장부가 될 경우 전경발발시 적의 핵공격 및 재래식 공격의 1차적 목표가 될 것은 뻔한 사실" 이어나 머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결사반대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기지촌 주변이 그러하듯이 안전리주변도 마찬가지로 동공연회 미군기지에서 나온 미군병사들이 백인과 흑인으로 나눠 패싸움을 벌여 인근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이다.

"평택역자들은 시정가기도 곤란할 정도라는 말도 있었지만 평택지역 주민들이 의외로 나가서 평택에서 왔다고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택역 여러곳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의 이미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덧붙였다.

"시민모임' 차원에서라도 이런 광역의회 선거에 후보자를 내보내 지역 주민과 보다 가까운 연대를 통해 기지이전 결사반대를 표출시켜 내고자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지이전문제는 단순히 평택지역차원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차원에서

어떤 감정이라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무감각해 지는 게 지역에선 당연시되더군요. 하지만 평택이전설이 나온 후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평택을 미군들로부터 지켜내야 하지 않겠느냐?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을 살려내는 일은 주변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90년 3월까지만 해도 대적으로 내려갈 거라던 용산미군기지가 대전시민들의 이전반대투쟁에 떠밀려 갑자기 방향을 바꿔 평택으로 내려온다는 보도에 지역주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기지이전에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인지와 기지 이전반대 싸움에 관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대전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고, 모아진 자료들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현시각에서는 평택지역 미군기지를 떠나는 경제적 피해, 살생, 폭력, 범죄등에 대한 인간적 자존심과 양심, 자녀교육문제, 질병 등 미군기지가 대중들에게 끼치는 제반피해를 중심으로 한 대중적 결집도를 강화시켜 일상생활에서 미군기지 이전 반대투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윤현수씨는 말을 맺는다. (조인환 기자)

유엔 가입 문제 그렇게 절실한가

해방후 유엔가입을 둘러싼 남북한 공방전

지금 한국의 유엔단독가입이 국내외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과연 단독으로라도 가입해야 할 만큼 유엔가입이 절실한 문제인가? 유엔과 한국의 얽힌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유엔가입을 둘러싼 남북한 공방전

유엔가입을 둘러싼 남북한 공방전

유엔가입을 둘러싼 남북한 공방전

유엔가입을 둘러싼 남북한 공방전

유엔가입을 둘러싼 남북한 공방전

유엔가입을 둘러싼 남북한 공방전

유엔가입을 둘러싼 남북한 공방전

유엔가입을 둘러싼 남북한 공방전

유엔가입을 둘러싼 남북한 공방전

유엔가입을 둘러싼 남북한 공방전

유엔가입을 둘러싼 남북한 공방전

짚막상식

IPU(International Parliamentary Union):국제의회연맹

국제평화와 제국간의 협력을 도모하며 의회활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국제문제를 연구할 것을 목적으로 한 각국의 국회의원의 연합체이다.

이 기구는 1888년 10월 31일 파리에서 영국과 프랑스 2개국간의 의원 34명의 참가로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제1회의에는 9개국이 참가했으며 해마다 높은 지위를 갖게 되어 현재는 유엔의 자문기관의 하나로

IPU (국제의회연맹)

53차 총회와 95차 이사회에 대표가 참석하여 가입했고 북한은 1973년 4월 제21차 이사회에서 가입이 승인되었다.

한편 1983년에는 서울에서 제70차 총회를 치렀으며 지난 4월 27일부터는 89년9월달간 제85차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다.

이런 평양에서 열렸던 IPU 총회는 남북대표단이 그동안 줄곧 주장했던 UN가입을 강조함으로써 북한과의 올바른 관계개선을 모색하기는 커녕 오히려 입장차만 확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유엔가입을 둘러싼 남북한 공방전

유엔가입을 둘러싼 남북한 공방전

유엔가입을 둘러싼 남북한 공방전

슈퍼 프레스펜의 특징

- Tip 구조가 전혀 다른 금속팁으로 축이 물러지지 않습니다.
- 細字用 프레스펜으로 글씨를 가늘고 부드럽게 쓸 수 있습니다.
- 필기거리가 1km 이상으로 길어졌습니다.
- 경쾌하면서도 품위가 있는 고전적 디자인입니다.

모나미의 역사는 곧 한국문구의 역사입니다.

匠人精神

작고 단순하게 보이는 한 자루의 필기구에도 정성이 깃든 장인정신이 있습니다. 전통의 모나미가 만든 슈퍼 프레스펜 — 30년 전통이 낳은 필기구의 걸작입니다.

문구산업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최초로 불문을 만들어 필기구의 일대혁명을 일으켰던 주식회사 모나미 —

지속적인 세계수준의 기술축적으로 질적·양적 성장을 꾸준히 해 온 모나미는 드디어 수성볼펜과 프레스펜의 장점을 살린 슈퍼프레스펜을 탄생시켰습니다.

모양은 볼펜이지만 필기감은 프레스펜인 슈퍼프레스펜! 전통의 모나미가 탄생시킨 새로운 필기구입니다.

모양은 볼펜, 필기감은 프레스펜!

모나미 슈퍼프레스펜

(중·적·흑·흰) 300원

SUPERPLUS

모나미의 단독생산 필기구입니다.

문구종합메이커

주식회사 모나미

민주연합수립위한 대중 조직화 시급

전경구속-장관인책-언론조작으로 사건의 진실hood 폭넓은 연대로 정권의 본질 선전... 공감대 형성해야

1. 사건의 발생과 상황 전개

“그 놈들이 경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여기 한 어머니, 아니 수많은 어머니들의 절규가 있다. 지난 4월 26일 학내시위도중 전경사복체포조(이하 백골단)의 폭행으로 쓰러져간 강경대 열사 죽음의 파장이 전국을 들끓게 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서충원학우들과 시민들은 토, 일요일인 관계로 조직적 대응이 준비되지 못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만여명이 강경대의 시신이 모셔져 있는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대로 속속집결, 규탄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지난 29일부터는 전국 곳곳에서 강경대 열사를 추모하는 촛불집회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29일 연대에 7만여명이 모여 ‘법국인 결의대회’를 갖고 도심진출 투쟁을 비롯하여 평화대행진으로 벌였으며 이후 각 학교별 규탄집회 후 인근 가두로 나가 시민과 만나 선전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남대 박승희(식품영양학2)와 안동대 김영권(민속학2)군이 “살인정권타도”를 외치며 분신, 박양은 위독한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이고 김군은 5월2일 오후 8시경에 숨을 거두었다.

2. 그러나 정권의 폭력성은

그러나 이와같이 경찰, 정권의 폭력성을 규탄하는 평화적 시위에도 불구하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29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이후 제주도, 수원, 서울등에서 팔명, 실명, 안면박상 등 중상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강경대열사의 죽음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었던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6공화국은 출발부터 구로구청에서의 많은 피를 요구하였고 이철규, 이내창, 신장호열사, 수많은 군의문사, 현대 식칼테러, 많은 노동열사, 그리고 최근 김영환씨의 의문사등 많은 민중들의 목숨을 담보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이다. 즉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을 막강한 물리력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그 위에서 겨우 권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정권임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백골단 5명의 우발적 강경폭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평소 시위 현장에서 흔히 볼 수있는 전경들의 쇠파이프, 죽도휴대, 백골단의 무자비한 폭력사용등으로 많은 부상자

3. 언론의 꼭두각시들

그러나 강경대의 사건이 터진 후 정권은 전경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언론조작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가렸으나 정권은 자신의 권력기반을 이들을 만행에 묵인하고 오히려 더욱 부추기고 있었던 것이다.



◇학우들의 분신은 학생·시민 연대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사진은 전남대 박승희양 분신모습 (사진:전대신문)

호리고 축소하려하고 있다. 정부는 어느때와는 달리 즉각적인 내부부 장관 인책, 구타전경구속이라는 방법으로 생각을 내고 있다. 즉 그들이 보여준 구조적 폭력의 진범이 바로 6공화국임에도 이 시대 우리의 친구인 백골단 5명에게, 본질적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또 정권은 ‘집안’이나 ‘부정’이니 운운하면서 법적인 절차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게다가 검찰측은 ‘누가, 무엇’으로 ‘어디’를 때렸느냐를 알아야 공소유지가 되고 말았는 형량부위를 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한 부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강경대군이 백주대로서 백골단에 의해 구타당해 살해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한 이상 ‘누가, 무엇’으로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구’에게 ‘어느만큼’의 ‘형’을 살려야 한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도 서술하였듯이 노경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만적 전술일 뿐이다. 또한 현 정부는 그들 권력의 또 하나의 기동인 언론을 조작, 사건의 축소하기위해 인건임을 쓰고 있다. KBS의 자료화면, 왜곡 일간지들의 축소보도등 그 막강한 힘(?)

용등 간접적인 참여에서 시위대에 적극적인 동참으로까지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이어서 한 할 아버지의 경우 민주당의 조화를 민간자당의 것으로 오인하여 부취버리기도 하였으며 영안실의 시수대를 위해 먹을 것을 사주는 모습은 보기 흔한 것이 되었다. 이러한듯이 학생들과 국민들이 모두 현 정권의 폭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울분을 조직적으로 묶어 세우지 못했고 오히려 선전해내지 못했던 점이 그간의 오류로 평가된다. 여기에 정권의 여론조작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계속적인 연세대 집결투쟁보다는 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 선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학우의 죽음에 흥분, 폭넓은 연대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동절을 계기로 한 강고한 노학연대의 모습으로 정권의 본질-미국과의 관계, 재벌과의 결탁-을 제대로 선전해 내지 못했다.

5. 앞으로의 투쟁방향

이제는 쓰러져간 열사를 추모하고 분신한 두 동료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투쟁에 나서야 할 시기이다.

이에 전대협에서는 정권측의 이데올로기공세와 여론조작을 극복하고 △노태우 정권을 살인정권으로 낙인찍고 민주대 반민주 전선의 대립구조 확립, △광안동치, 민중탄압을 분쇄하고 노동자의 진출보장, △야당을 포함한 대개혁기구를 중앙과 지역에 건설하여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앞으로 다가올 광역의회 선거시 조직적 단결의 교부보를 확보한다는 목표아래 △진정, 백골단해체, ‘공안통치 공안내각퇴진’을 쟁취목표로 걸고 끝까지 투쟁하며 △총체적으로 노태우 퇴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면서 투쟁의 방법으로 폭력시위는 자제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 있어 사건의 본질을 밝혀내지 않고 있다.

4. 이전까지 투쟁의 성과와 오류

이번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살해행위이므로 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특히 투쟁의 본질으로 현 시기의 어려움이 폭넓게 공감되고 노경권 퇴진을 위한 투쟁의 열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쳐 주거나 검은 리본패



◇고 강경대 열사사건이후 집회에 시민들의 참여가 높다. 사진은 지난 4일 시청앞에서 무장해제 담판 전경과 그의 동료들이 시위대 옆을 지나고 있다.

봉쇄하고 나아가 지자체등에서 민중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건언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폭력, 비폭력 시위의 논란은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염병의 사용자체는 국민들의 감정여하에 따라 언제라도 변동될 수 있는 전술적 개념이며 현재는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 즉, 이번 사태는 폭력시위를 진압하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선

전공세를 휘말리지 않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번 투쟁의 방향을 지극히 당장 노태우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방에서 확실한 민주연합정부수립준비가 될때까지는 반노-반민주-전선의 확립을 가져오는 계기로 삼고 정권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투쟁을 접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정해진

것이다. 궁극적으로 노태우 정권퇴진을 위해 단기적으로 ‘백골단 해체’와 ‘노 내각 사퇴’, ‘판관자 구속’을 위해 국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조직화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동원투쟁을 통해 내용이 담보된 조직적 대중투쟁으로 현재의 정세를 주동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부)

“학생을 적이라 생각하는 고참있어”

서울시경 제2기동대 12중대의경 나윤성일경이 지난 1일 연세대법국인대행진의 사무실에서 양심선언을 발표했다. 앞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겠다고 다짐하는 나윤성경의 심정을 실는다. (편집자)

작년 10월 17일 법외와의 전쟁선포이후 올해 들어서만 직역단 부상자 6명, 총기부상자 1명, 자폭과 공방에 입은 부상자, 쇠파이프에 찔려간 고 강경대 열사등..

‘시위 주동자 검거’라는 미명아래 자행되는 공격위주의 포위작전은 열사를 배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있다. 특히 고 강경대 열사의 폭행살인 사건은 노태우 정권의 공안통치 속에서 강요된 무리한 시위진압이 주된원인이다.

87년 이후 명예선언과 양심선언을 한 진정, 백골단 7명이 지난 4월30일 진정, 백골단 해체및 애국진경들의 양심적 행동을 내용으로 살인적 시위진압기부와 양심선언을 촉구한다.

이런에는 서울시 경찰국 제2기동대 12중대 소속 나윤성씨(21세)가 진정의 폭력성에 회의를 품고 지난 5월1일 오후7시 중대담을 넘어 부대를 이탈 연세대로 들어와 양심선언을 했다. 나씨는 이번 양심선언의 심경 배경으로 “신문등에서 시위관련 자료를 스크랩하면서 전부경찰의 폭력성에 대해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 강경대열사의 죽음을 접하면서 심리적 갈등을 겪어왔다”면서 “진압중대에 사

복체포조가 있는 한 제2, 3의 강경대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 믿고 같은 젊은이들이 서로 싸우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양심선언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나씨는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제목의 양심선언문을 통해 ‘강경대 열사와 똑같은 나이로 이자리에 서는 것이 떨린다’며 ‘강경대 열사의 죽음은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떠나 통렬과 민주화를 가르라는 독재정권의 허수아비로 전락해버린 백골단은 해체되어야 하며 노경권은 반드시 퇴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천명하기도

했다. “진압훈련이 여름, 겨울 1회씩 진행되며 훈련내용으로는 분쇄, 체포술, 방패술을 받는다. 방패술은, 화염병을 막는 방어형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방패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받고 있다. 대형은 2중대 횡대가 보통이었지만 이제는 드, 모자 대형으로 전원 체포를 원칙으로한다”고 밝혔다. 나씨의 경우에는 자대배치 받은지 얼마 안되어 상황배치에 대한 경험은 별로없지만 고참들의 경우를 보면 이상적으로 “학생들은 적이다”라고 생각하며 시위진압에 나간다는 전경체제의 한계를 말하며 한숨짓기도 했다. 마


지막으로 동료진정과 이방의 청년학생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묻자 “진정은 무리한 진압을 거부해 내고 시민, 학생에게는 절대 구타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경들의 실질적 배후조종자 노태우는 퇴진되어야 하며, 이는 청년학생들의 선전적 투쟁으로 가능 할 것이다. 청년학생들이 열심히 나서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단일 계속되는 근무속에서의 피곤함과 시위상황에 되지 말았으면 하는 긴장감에서 해방된 평온함을 비추었다. (서울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방어 아닌 공격진압 훈련해 실질적 책임자 처벌 받아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 강민조씨는 나윤성의 말을 듣고 “정말 용감한 강경대의 친구가 왔다. 지금까지 교육받고 했던일은 노태우 정권의 허수아비로 한 일이다. 이제는 처음으로 양심으로 이 자리에 선 모습이 너무도 훌륭하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지금 구속돼 있는 진정 5인은 경대를 죽인 자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은 석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석방되어야 한다”며 나씨를 격려했다. 나씨는 이날 증거물로서 가지고 나온 훈련교본을 제시하며 진압훈련의 공격적인 내용을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 강민조씨는 나윤성의 말을 듣고 “정말 용감한 강경대의 친구가 왔다. 지금까지 교육받고 했던일은 노태우 정권의 허수아비로 한 일이다. 이제는 처음으로 양심으로 이 자리에 선 모습이 너무도 훌륭하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지금 구속돼 있는 진정 5인은 경대를 죽인 자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은 석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석방되어야 한다”며 나씨를 격려했다. 나씨는 이날 증거물로서 가지고 나온 훈련교본을 제시하며 진압훈련의 공격적인 내용을 폭로했다.

20살 여성을 위한 에디앙 광고페이지④



에디앙 장학생을 위한 두번째 「에디앙 이야기」를 찾습니다

「사랑의 비너스」로 잘 알려진 (주)신영에서 젊은층을 위해 만든 화내대이선·리제리의 새이름 에디앙은 여대생들의 상표이자 평가결과 자신들의 감각에 맞는 참신·신선·상큼·감격 하다는 평을받아 아름답게 태어났습니다.

■ 에디앙 이야기 주제[1]: 부처지지 않은 편지

매일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한귀걸 쓰고나면 매일 편지를 한 장 씌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편지는 한번도 부처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가까운 사람에게 보내기 위해 써놓았던 부처지지 않은 아름다운 사연이나 감동적이고 독특한 사연이 담긴 편지, 또는 쓰고자 했던 사연을 편지지에 옮기지 못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추억담 등을 전국의 모든 학우들에게 아름다운 색깔로 선택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이러한 빛바랜 색깔로 책갈피에 남아 있을 부처지지 않은 편지를 간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 에디앙 이야기 주제[2]: 형(兄)

흔히 동기나 또는 같은 형렬(行列)에서 사나우 여자의 같은 편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부를때 「형」이라고 부릅니다.

본 주제는 그름내 또는 기타 모임의 장소 등 캠퍼스 안팎에서 겪었던 여러가지 이야기중 남자 친구를 칭할때 「형」이라 부른 기억을 찾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남자 친구와의 사이가 다정다감 하거나 교분이 매우 두터울때 칭한 형의 의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은 또다른 형의 기억도 갖고자 합니다.

● 이름: 에디앙 (Etienne)

● 성 별: 여(F)


● 나 이: 18세~23세

● 취 미: 음악감상, 기차여행

● 음 식: 국수보다 라면을 더 좋아한다.

● 성 격: 유머가 풍부하고, 말하느라 좋아한다.

● 이미지: 예쁘고 아름다운 연인을 상징



● 주제선정: 두번째 에디앙 이야기는 「부처지지 않은 편지」 또는 「형」 중에서 한가지만 택일하여 용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자격: 18~23세의 여대학생

● 응모요령: 200자 원고지 10매 정도(우송시 반드시 학교명, 학과, 학년, 전화번호, 성명 등 기재할 것)

● 응모마감: 5월 28일

● 보 날 곳: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345-54 (152-020) (주)신영 광고부(문의: 855-5011~20)

● 당 탈 선 작: 당선작은 6월초(또는 중순) 각 대학신문에 게재되며 ○명예로 하여 에디앙장학금(한학기 등록금)을 수여함

여자가 아름다움에 눈을 뜨는 나이, 스무살 그 감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에디앙이 태어났습니다. 잔잔한 레이스와 산뜻한 색상이 스무살의 아름다움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는 에디앙! 누구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스무살이 되면 에디앙과 만나세요.



에디앙 / 그녀는 누구인가?

●●●● 얼린글터 ●●●●

본사 여론배부는 동약의 모든 주체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글, 만화, 사진등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원고에 대해 소정의 고료도 지급합니다. 각 단면 모원(편집부장)을 통하여나 신문사로 직접 가져 오시면 됩니다.

더욱 붉은 빛깔로 피는 오월의 카네이션

어머니, 건강하고 멋있게 살겠습니다

멀리 고향에서 아들을 걱정할 어머니께. 어머니, 당신의 걱정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세계로 나선지도 벌써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그동안 자라난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살머시 펜을 켜어봅니다.

이 만든 영화가 아나가 할 만큼 평범한 한 대학생과 어머니와의 생활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조차 탄압하고 저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음에 놀라야 했고 최후탄을 앞세워 우리들의 학우를 잡아가고 학교를 문화발로 짓밟는 모습에서 무엇이든 찾아오는 분노를 느끼야 했습니다.

서서히 깨닫고 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멋있다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듯이 그분들께서도 스스로의 값진 희생으로써, 이땅의 피끓는 청년학도의 나갈 길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어머니께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의 청년학도로서 멋있게 어머니, 이 사회의 기폭제가 되어주시는 어머니! 항상 건강하게 이 아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통일염원 47년 5월8일 아들 울림

신 태 윤 (이과대 수학과)

김 국 회 (사범대 수학교육과)

'무장해제'



초대 사진

강군죽음으로 혁명의 기운고조 5월9일 가두에서 만남시다

지난 26일 정권의 허수아인 백골단의 최파이프와 군화발에 의해 강경대학우가 살해되었다. 우리의 학우가 또다시 무자비한 폭력에 의하지 않고는 유지될수 없는 정권에 의해 살해되었다. 노경전철출3년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민중들은 불탄으로 꼭 차있고 이번 강경대학우의 죽음으로 정권의 청년학도를 투쟁으로 떨쳐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계속된 투쟁으로 노태우정권은 무너지고 있고 87년 6월과 같은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이제 청년학도의 총파업, 총결기는 잠재해있는 민중들의 불만을 혁명적인 활동으로 불러일으킬수 있을 것이다. 90년 1월22일 한미타도 반동과 민중전역의 일대변화가 있었. 노태우정권의 단결적의 인 권국노동조합이 힘난한 격들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건설되었고 노경전은 자신의 권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김영삼과 김중필과 함께 민주자유당이라 불리어지는 보수대연합을 결성하였다. 88년 3지호청이후 남한경제의 수출부진과 내수차증정세를 하면서 통화남방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였다.

대한 단합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성의 한 예가 강경대학우의 죽음이라 최파이프에 의한 강경대학우의 살인, 폭력정권타도를 외치며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학우의 분신! 이 상황이 전국을 울림이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민중 탄압분쇄투쟁으로 일어나야 한다. 노경전의 본질에 대해 청년학도의 임무는 무엇인가? 강경대학우의 죽음을 단순히 애도하는것이 아니라 정권의 본질을 폭로하고 정권타도를 명확히 하여야한다. 조직화된 국가권력에 대항하기위한 4천 만민중과 청년학도는 조직화된 투쟁으로 일어나야 한다. 이형게하여 전진으로 우리가 바라는 민중적이고 민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민중권력을 쟁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야당을 적극 우리의 투쟁의 장으로 견인하여야 한다. 내각사퇴를 주장으로 민중을 기만하지 말고 노경전타도의 한걸음 나기도록 우리의 투쟁의 파고를 높여나가자. 오는9일 민자당 창당일, 우리모두 파가발을 들고 4천만 민중앞에 나서자.

이재필 (자연대 조경학과)

알림

타오르는 5월을 살아가는 동약의 학우여러분. 저희 여론배부부 '얼린글터'는 한사람 한사람의 진솔한 현장의 경험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동대신문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론 분분한 통일되지 못한 집회 모습 책임성 있는 간부의 모습 요구돼

"분위가 안된다." "집회에서 열을게 없다." 강경대열사 죽음이후, 동약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이다. 학생이 정권의 방패막이에 무참히 죽어가고, 잇따른 분신이 있는데도 동약이 침체되어있는 이유를 두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정세가 급변하고 비상사태로 돌변한것만큼 간부들이 결의를 높여내고 헌신적실천투쟁을 벌여내지 못했다. 둘째, 결의를 모아 실천으로 옮겨야 할 집회장에서 구호부터 행동까지 통일된 모습이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로 학우들에게서 신뢰받지 못하고 집회인원은 늘어날줄을 못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선,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이 학우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한 것이어야 하고 그 결정 사항은 실행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열다섯, 밤새워 운위를 했을때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운영위원들께 묻고 싶었다. 자신의 단파학우들에게 운위 참석 여부를 발원내용이 그대로 생방송되더라도 그렇게 일했는지. 또 밤새 회의했던 그 내용이 단파사업에 압도적 다수가 참여하는 것으로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지위에 맞는 자각, 학우들에 대한 책임이 운위에 임하고, 운위의 결정내용은 바로 실행되어야 한다. 열매 또 여기서 문제는 운위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 즉 지도를 따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도자의 지도내용은 그 한사람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1만학우의 요구를 담은 운위의 결정인 것이다. 지도에 따르지 않

경주민중의 대변지 한겨레신문 살리자

한겨레신문 경주지국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경주지역에서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지로서 진정-민중의 편에서 민중의 소리에 소용돌이 없는 한겨레신문을 확산시키고자 정영태씨가 운동적 차원에서 경주지국을 인수했습니다. 경주지국장 정영태씨는 텍스노즈 경주지부장으로 일하면서 경주지역의 민주노조 활성화를 위해 일했고 현재는 노동쟁의 조정법과 중부집행 방해죄로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경주공단 임금인상 투쟁본부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지역의 악성 노사분규 조정자로 낙인찍혀 노동운동단압의 일면으로 한겨레신문 탄압 차원에서 경주지국이 구속되었고 있다는 피해발생으로 인해 경주지국은 극심한 경영난에 계속되고 있는 현재는 폐쇄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민중의 편에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민중의 귀와 입이 되어 참언론과 민주화의 정착을 위해 싸우고 있는 한겨레신문 경주지국을 우리모두가 함께 사수합시다. 더구나 유일하게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 국민주요 움직이는 신문이기에 여러분의 도움은 더욱 절실합니다. 또한, 경주캠퍼스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애독하는 신문이라는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구독료를 내지않아 지금의 상황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동약의 학우 여러분! 민중 언론인 '한겨레 신문'을 보수적인 경주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도와주세요. 한겨레 신문만이 남한땅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전문직업의 민중대변지입니다. <여성문제연구모임 '꽃다지'>

동문투고

"...시인은 잠수복 속의 토끼와 같다. 토끼가 인간 보다 먼저 합내의 산소 결핍함을 감지 하듯이 시인은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산소량, 다시 말해서 자유의 함량 부족을 맨 먼저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게오르그가 부연설명은 하지 않았어도 이 의무는 비단 시인에게만 해당되는 않는다. 그것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진 인간이면 누구나 떠맡아야 할 책무이다.

가신님들과 후배님들께 드리는 글

을 새기며 실천적인 고민에 빠질 때, 나의 등 뒤로 박힌 서늘한 산소 결핍함을 차라리 지옥이었다. 땀방울을 가위에 눌렀던가. 83년 여름, 강제징집 후 한 층의 재가 되어 돌아 온 최은순(수학교육 81)의 땀을 안고 이를 부드득 갈며 지옥에 맞서리라 작정했다. 그러나 나는 항복하지는 않았으나 확고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제 용병 노릇을 해야 했다. 3년 후, 철저한 반성없이 어정정한 상태에서 나는 사회에

다 못했다. 괴로우면 언제든 지을 수 있는 비겁의 상자들이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고, 그것이 추잡하다고 견어차버릴 만큼 결연하지 못했다. 부끄럼에도, 나의 기억 속에서 피비린 5월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음을 자인한다. 반드시 네 원수를 갚으라고 다짐했던 은순이의 영상이 많이 빛났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무기력함을, 생활을 핑계로 합리화시킬 만큼 절망적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생활에 증독된 선배를 일깨운 남의 산화

생활의 현장에서 부대끼며 내가 방기하고 있던 그 책무는 너무도 아파고 다가왔다. 무기력에 빠져 있는 나를, 불구 타라는 최파이프로, 심장을 파괴고는 불길로 우리의 토끼를 그렇게 일깨운 것이다. 그 처절한 주검에 서리위할 틈도 주지 않으려는 듯, 조국의 아들 딸들은 분명하게 경고했다. 지금은 열사가 아닌 전사가 될 요한 때라고.

죽음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맑은 아메리카의 명명장을 온 간악한 살인자 함양의 입에서 나올 게 아니라. 그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입에서, 죽음 보다 성숙한 무쟁을 대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따금 각성의 요구가 벌쳐질 소기도 했다. 실제로 나는 내 처지에서 해야 할 바를 내 스스로 찾지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복체포조(백골단)이 휘두른 최파이프에 맞아 '피다진' 강경대군이 물고은 파장으로 그동안 국민들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정부에 대한 불만이 대정부투쟁으로 변하고 있는 지금 작년 5월9일 반민자당 투쟁대 전경들이 쓴 격적탄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된 중경련의 피해자인 김진태(사학4)군을 만나보았다.

5.9투쟁 1주기를 맞이하며

러한 선전작업은 언론이 해야 할 일을 하지않음으로 인해 더욱더 중요하며 '언론'이라는 것도 정권의 지령이나 안기부의 지침등으로 조종되고 같은 대정부투쟁시기에 국민의 여론과 무관하게 축소, 왜곡보도만을 일삼고있다'고 다소 흥분해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전달을 위해 학우들이 매일 자기역량을 갖춰 유인물을 돌리는 등 선전을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한다.



김진태 (문과대 사학과 4년)

현재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증폭태는 불만이 '강경대열사 타살사건'으로 더욱더 분출돼가고 있는가 하나, 강경대

군 사령은 그동안 계속 자행돼 온 청년학생에 대한 폭력, 민중들에 대한 폭력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것이며 '애국적인 청년학생의 죽음은 이 정권이 팔장이나 팔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과별로 환원된 진행되고있는 5.9-동맹투쟁에 관한 토론회등을 보면서 "학우들의 자주적인 요구를 모아 대정부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라 얘기했다.

김진태군은 자신에 대해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라 강조하며 동료에 대한 사랑, 남자가 조국과 민중에 대한 사랑이 그러한 힘의 원천이라 말한다.

그리고 강경대군 소식을 처음 들었을 당시의 심경을 묻자 "안타까운 감정과 함께 청년학도 지성인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 가라는 구체적인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문과대가 비상체제로 돌입하면서 이후에 같은 시기와 함께 강경대열사의 죽음의 의미를 선전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라 현재의 활동상황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동맹투쟁을 들려준다. 특히 이

상징물 보수·관리체계 시급

불상·코끼리상 파손...건학이념 '무색'

심층진단

만해기념관등 장단기계획 세워야

오늘(8일)로 개교85주년을 맞이하는 본교는 국내 유일의 불교종립대학으로 교내 곳곳에 그 위상을 과시하는 상징물이 있으나 그 관리가 소홀하여 불상, 코끼리상등 상징물에 대한 보수작업과 정기적인 관리체계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본교의 건학이념과 불교사상을 나타내는 상징물은 명진관 앞 불상을 비롯, 코끼리상, 만해사비 등이 있으나 그동안 학교측의 관리소홀과 학생들의 이용장점으로 심하게 파손되어 있다.

불상의 경우, 지난 64년에 세워져 본교의 건학이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었으나 지금은 불상일마당의 인조대석이 깨지고 빗물로 인해 열면 대리석이 자국이 생기는 등 그 모습이 폐색되고 있다.

또한 불상주위의 조경수도

키가 커 불상전경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다.

본교의 힘찬 기상을 자랑하는 코끼리상은 지난 71년 5월

개교65주년 기념으로 세워져 본교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유일한 교수(敎獸)이다.

그러나 코끼리상 주위의 조

경환경이 마비되지 않고 동파로 인해 인조석 틈이 벌어졌지만 그 대책이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다.

이렇듯 보수를 요하는 상징물이 방치된 가운데 관계자는 올해 불상보수 계획을 수립,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상징물의 보수는 먼저 관례와 각 상징물의 파손정도를 파악한 후 건설조정위원회



◇불상 앞 대리석이 빗물에 산화된 채 방치돼 이의 보수가 시급하다.

의 논의와 정략위원, 불교문화연구원장의 자문을 얻어 보수작업을 집행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본교 상징물이 불교사상을 나타내는 만큼 주의깊은 조사

(이병민 기자)

경주병원 10월 개원 추진

의료기기 도입-진료교수 확보 구체화

의료원 기획실(실장=홍지유)은 오는 10월초 의과대학속 병원인 개원한다는 목표로 지난 4월16일부터 의료기기 도입, 조정공사등 개원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벌여왔다.

병원개원 세부계획에 따르면 중 28개과 3백20병대 중 내과를 비롯 14개과 1백50병대 규

모로 부분개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스지난 4월25일부터 시작된 병원주변 조정공사는 6월까지 △6월중 경주시의 준공허가 △7월이내 경상북도의 종합부속병원 허가 △9월초까지 의

료기기 도입과 진료교수 및 간호원, 직원 확보를 추진하게 된다.

이 어 9월, 환관동은 병원 운영 모의실험을 실시한 후 10월초에 개원할 예정이다.



정우식 총학실장

임석대동제 연기

오는 28일부터 나흘간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기로 했던 경주캠퍼스 임석대동제가 오는 28일부터 31일로 연기됐다.

중앙운영위는 지난6일 오후6시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5월부평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동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취업특강 실시

취업준비요령등 강의 경주캠퍼스 학생처 주최 취업특강이 '취업대책 준비와 전략'을 주제로 내일(9일) 오후2시 시청각실(도서관 4층)에서 실시된다.

장재성(매일경제신문사 비즈니스센터 차장)씨를 강사로 실시되는 이번 특강에서는 91년 취업준비요령,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응답, 지방대생 취업대책, 여대생 취업대책, 각종면접대책 등이 소개된다.

민문연 '5·18 11주년' 공연

마당극 '일어서는 사람들'등

경주캠퍼스 민중문화운동연합(의장=오승현·의학1) 산하 마당극 5·18 평주항쟁 11주년 공연이 오는 15, 16일 양일간 교내 일원에서 열린다.

평주항쟁 11주년 계승공연 및 새노래발표를 목적으로 노래대항(의장=송인숙·영문3)의 '옛빛오월에서 해방의 나라로'가 오는 16일 오후2시(문무관), 오후6시(북아원)의 2차례 공연을 가진다.

또한 풍물패 '탈패'(의장=오

정원·철학2)의 마당극 '일어서는 사람들'이 오는 15일 오후7시 북아원에서 열리며, 연극패 소리문짓(의장=송홍식·의예2)은 연극 '머리위로 올라간 양말'을 준비중이다.

본지 1072호에 이어 게재되기로 했던 '사립학교법 대안'은 이번 판례로 다음주호 연거름을 알린다.

—마지막으로 동아인에게 하고 싶은말.

—예, 지금은 우리 동국이 일대 도약이나, 철학의 높에 계속빠져 있느냐를 가늠하는 비상시국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 동학의 통일·단결이 가장 시급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침묵을 깨고 시국성명서 발표등을 통해 민족동국 85년의 상상을 빛내주시길 바라며 또한 동맹휴업에 적극 동참하여 민주화로 가는 길을 같이 달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1만동아 학우들은 학자투의 모

—마지막으로 동아인에게 하고 싶은말.

—예, 지금은 우리 동국이 일대 도약이나, 철학의 높에 계속빠져 있느냐를 가늠하는 비상시국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 동학의 통일·단결이 가장 시급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침묵을 깨고 시국성명서 발표등을 통해 민족동국 85년의 상상을 빛내주시길 바라며 또한 동맹휴업에 적극 동참하여 민주화로 가는 길을 같이 달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1만동아 학우들은 학자투의 모

(김영환 기자)

와 연구를 통해 보수작업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 복잡한 과정으로 작업의 집행력이 떨어지고 있어 단일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또한 상징물 보수에 대한 독립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도 겪고 있다.

지난달 30일 불교학과 정기총회에서 전학년 관공을 불상보수비로 쓸 것을 결의한 것을 보더라도 학교측의 상징물에 대한 예산책정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반증해준다.

한편 상징물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시각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불상주위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비롯해 코끼리상 기둥에 대자보를 붙이는 학생들의 태도는 학교의 얼굴이자 건학이념을 나타내는 상징물에 대한 바른 자세는 아닐 것이다.

불상을 보며 본교의 건학이념을 생각하고, 코끼리상을 보며 동학의 힘찬 기상을 다짐하는 학생들의 시각교정도 85년 전통을 계승하는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불교대학이 추진하는 '만해동상'과 만해기념관 건립에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 시기 민족 동국의 현실을 85년 역사에 비추어 진단해 본다.

—역사가 긴 만큼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기원이 이른해 중후한 대학이라는 것과 역사의 비례 발전속도가 느리고 정적인 대학이라는 두가지 상반된 전제가 있으나 나는 모두 옳은 말이라 생각한다.

—취임당시 제창한 동국발전 계획은.

—우선 남산계개발금지 때문에 학교발전이 결빙되어 되고 있습니다. 서울캠퍼스는 절을 중심으로, 경주캠퍼스는 당분간 양을 중심으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기적



민문연 총장

'동국발전추진위'구성해 체계적 발전 모색

해외교류 확대로 학문의 세계화 추진

발전대안으로써 제3캠퍼스 건립을 위해 많은 노력중입니다.

—본지(제1068호 3월13일자)인터뷰에서 제3캠퍼스 건립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 했는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상당의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부지설계문제인데 경기도 내의 몇군데를 놓고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본지 조사에 의하면 수원에 제2의 아무개이사 소유의 15만평 정도의 부지가 있어 그

—중단점에서 중정선출문제 제2단이 약속한 상당한 지원이 늦어지는 등 제2단과 총장님이 아직 학교발전추진위 구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총장취임 이후 여러가지 업무에 바쁘다보니 그렇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정도 본래 계획에 올라가서 그러한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2단 이사님들도 열심히 도와주리라 믿습니다.

—현재 가장 주력하고 있는

요인이 하루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동국발전추진위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구도 할 것입니다.

—행정제도개선, 우수 교수·학생 유치, 제3캠퍼스 건립등을 두어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운영방법, 구상 등 세부사항을 구성중에 있습니다.

—(남궁은 기자)

개교 85주년 특별 인터뷰

오늘로 개교 85주년을 맞이한 동국대학교는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으로 옹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국의 현실은 모두에게 희망적이지 않은 않다.

이에 동국 백년을 바라보며 동국발전을 위한 학내 각주체 대표의 인터뷰를 실는다.

—우선 지난2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임시총회의 원인이란.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발전이 이바지해야 되는 교수총회가 의결정족수미달로 속개되지 못하고 간담회식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수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시총회식 거행되지는 했는데 교수회로서는 임명권자인 재단에 '제삼'을 요구하는 방향, 즉 개인용문제가 다시 다뤄지기를 바란다는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수문제가 있어서 사실 교수회로서는 재단측에 법적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다만 '교원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제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단의 권한확대문제가 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정부도 강건오만한 학생들의 의기를 꺾었다고 하지 말고 문제점의 근본을 직시해야 하며, 아울러 학생들 또한 화합 분위기 조성 필요. 또한 행위로만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요 합니다. 또한 교수들이 그 사이에서 냉정하게 하는 그 자세는 절대 바람직치 않은 것이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성인이라면 집권자의 잘못을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하며 생명을 경시하는듯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의 태도를 다독여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확산된후에 어느 일방을 탓하기만 하는 것은 교수자신이 해야 할 바를 의면하는 것이며 나아가 학생들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개교85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동국부흥을 위한 방안에 대한 생각은.

—지금의 동국이 철학의 높

(김영환 기자)

동국인 모두 '하나'됨으로 발전토대 마련

개약 사립학교법 본교에서도 재검토 대상

유감입니다. 그리고 교수회가 잘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일찌기 없었던 민선총장이 뽑히거나 아니어도 안도감과 기대감이 앞서 민선총장의 활동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학기를 마무리하며 그간의 오류에 대한 비판과 이후 방향제시에 있어 영향력이 있었리라 봅니다.

—황필호교수가 현재 재임용에서 탈락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교수회 입장.

—일단 지난번 61명 교수들의 임시총회 요구서에는 황교



김정호 교수총회장



대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립학교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는 부교수이상 재임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교에서도 이런것들을 연구·검토해 재단에 건의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강경대군의 죽음으로 각종 인사들의 목소리가 높고 전국적으로 교수들도 성명서 발표와 합의봉선을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한마디로 말해 현 사태는

(최윤복 기자)

이것이 차세대 컴퓨터!

VGA

컴퓨터!

1 고해상도 SUPER VGA 채용

2 HERCULES에서 VGA까지 완벽한 호환성 실현

3 별도 VGA Board 구입비용이 필요없는 최상의 가격

금성마יתי 286M

VGA가 기본장장된 금성 마יתי 286M은, 기존의 AT급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VGA기능을 실현해 드립니다.

금성 마יתי 286M은, 통해, VGA의 특성점(다채로움, 칼라표현, 선명한 화질, 완벽한 비디오모드 호환성) 손쉽게 이용해 보십시오.

VGA란? (VIDEO GRAPHIC ARRAY)

개인용 컴퓨터의 고해상도 실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화질의 표현은 물론 컴퓨터 그래픽에 필수적인 컬러 256가지의 COLOR 표현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화면 출력방식입니다.

금성 컴퓨터

금성사

■ 본사 및 제품구입 문의처

서울시 마포구 홍익동 275-1 (금성 빌딩) 금성 컴퓨터 (02) 705-3336-44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07-1 금성 컴퓨터 (051) 251-1471

대구광역시 동구 대동로 107-1 금성 컴퓨터 (053) 255-1471

광주광역시 동구 동부대로 107-1 금성 컴퓨터 (062) 571-8889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107-1 금성 컴퓨터 (032) 705-3458-9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7-1 금성 컴퓨터 (02) 705-3550

◆ 특징: ● 그래픽모드에서부터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여 하는 편리한 윈저윈도(국내최초) ● 최신부품인 EMM(전지배정)을 장착하여 ● 바이러스 감염방지 기능 ● 15시간 무상교육을 위한 ● 한니멀드 프로세서 및 자기진단 소프트웨어 무상제공 ●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활용성을 높여주는 MOUSE PORT 기본장

